

“청소년과 함께 성장·성공 노력하자”

전북도, 청소년 성장지원 위한 협의체 출범식 개최... 도·교육청 등 9개 기관 협업 정책발굴 등 추진

도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협업해 추진하기 위한 '전북도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전북도는 18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과 서거석 도교육감을 비롯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라북도학생의회, 전북청소년참여위원회 등 9개 기관장과 청소년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앞서 여성가족부(총괄)·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주관)에서는 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체를 대상으로 공모했고 전북도가 선정된 바 있다.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는 지역 수요 중심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탄력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해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 사업을 실시한다.



도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각종 정책을 협업해 추진하기 위한 '전북도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합·성·인·전북은 청소년 관계기관이 청소년 정책을 위해 함께 내는 소리는 사회적 의미와 청소년과 청소년 관계기관이 함께 성장한다는 선인전 의미 민선 8기 도정의 슬로건인 함께 성공의 의미 등을 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4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도지사과 교육감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협업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중심으로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복지·보호), 전북청소년수련시설협회(활동), 전북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 전북학생의회(청소년), 전주고등학교(학교), 전북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보호자) 등 9개 기관이 협의체에 참여한 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체 출범을 선포한 뒤 성공적인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포럼이 진행됐다.

포럼은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 사회 연대의 방향'이라는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온상림 청소년참여위원회 부위원장의 '청소년이 머물고 싶은 전북 △최영숙 익산시청 교육청소년과장의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안성균 전주이호교육진흥지원센터장의 '지역행정 및 교육협력 체계 구축 활성화 방안'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장의 '청소년 참여와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 등 각 영역별 전문가들의 주제발

표와 대화의 시간이 이어졌다.

협의체의 공동의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협력해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소년이 원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청소년과 청소년 관계 기관 등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공동의장인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의 실태와 그들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다르다"면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경청해 청소년을 지지하고 돕는 데 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17일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가 누적 강수량 491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군산시의 산사태 취약지역 현장과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현장 찾아

임상규 행정부지사, 취약지역 관리실태·주민대피 등 대응 상황 점검

전북도는 지난 17일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가 누적 강수량 491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군산시의 산사태 취약지역 현장과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 부지사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지 복구상황, 취약지역 주민대피 체계 등도 확인했다.

특히 산사태취약지역의 보수·보강 등 응급장비 실태, 실질적 주민대피를 위한 비상연락 체계 구축과 대피장소 지정, 주민 문자발송 상황 등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로 군산시에서 발생한 2건의(0.56ha) 소규모 산사태

피해에 대해서도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강화 및 항구복구 추진을 지시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연일 기록적인 폭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산사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이미 지정된 취약지역을 포함해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예방 활동을 강화해달라"며, "점검결과 위협하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적극적으로 주민 대피를 실시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성장사다리기업 최고경영자 혁신포럼

신규 중기 성장사다리기업 50개사 인증서 수여... 연구 개발·마케팅 비용 지원

김종훈 경제부지사 "도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

전북도와 (사)캡티브중합기술원, (재)전북테크노파크 (재)전북도경제통진진흥원은 18일 전주 대미이호텔에서 '전북도 성장사다리기업 최고경영자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구축이 되는 풀용기업, 도약기업과 선도기업의 최고경영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매년 개최되는 '전북도 성장사다리기업 최고경영자 혁신포럼'은 기업간 정보교류, 상호회습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석학을 초빙해 글로벌 산업 트렌드와 미래 세대 준비를 위한 초청 강연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3년 전북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신규지정 기업 50개사

대해 지정서가 수여됐다.

올해는 22개 기업이 신청해 약 4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류심사, 현장심사와 발표심사를 벌인 뒤 지난 5월 25일 전라북도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50개사가 선정됐다.

전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는 기업규모와 성장단계에 기초한 지역과 중앙정부 기업육성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전북도 대표 중소기업 육성정책이다. 전북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24개 기업에는 성장지원과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R&D)과 ESG 평가·개선 등 153억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경영안정자금 상환과 이차보전 우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

진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 성관대학교 산학교수 전운호 박사의 '챗GPT 이해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GPT의 개념과 전망에 대한 강연도 이어졌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 대표 중소기업 육성정책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또한 도정 시책인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기업이 산업활동을 하는데 좋은 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실태 집중 점검

전북도가 에너지절약에 앞장서기 위해 도 소속 공공기관 13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이용 실태점검을 불시에 실시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번 실태점검을 8월 25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11개 항목에 대해 점검하고 미준수 기관은 시정조치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항목은 △실내 냉방온도 26℃ 이상으로 유지 △에너지지킴이 지정 및 활동 △냉방기 30분간(오후 5시~5시30분) 가동 중단 △승용차 요일제 시행 여부(8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등이다.

다만 도는 기관 성격에 따라 학교, 도서관 교육시설 의료기관 아동·노인 복지시설 미술품 전시실 등 다수의 학생·도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정온도를 관리해 도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중부내륙·전북 동부권, 연계 발전 모색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동추진 협약

전북·충북 연구원, 향후 특별법 활용 통해 동부권 발전동력 창출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과 충북연구원(원장 황인성)은 18일 전북연구원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및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의 전라북도 동부권 연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내륙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동추진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특별법 공동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포럼 및 세미나 공동개최 등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상호 현안 사항 및 시책 등에 관한 자문 및 지원 등이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2년 12월 국회의원 28명 공동발의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국가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

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 등 2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무주군이 포함되어 있다.

이남호 원장(전북연구원)은 "현재 전북의 시군 중 무주군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이의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동부권 시군으로의 공간적·기능적 연계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별법 활용을 통해 전북도 동부권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인성 원장(충북연구원)은 "본 협약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물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내륙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양 기관의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모 집 우석대, 전주교육대, 전북과학대, 원광대, 군산대, 남원평생스피치웃음코칭과정 모집

스피치·긴장해소·웃음코칭·리더쉽, 면접

◎모집대상: 대학, 일반인 남녀 누구나 ◎매주 1회 수업(주산, 야산)
◎등록방법: 전화접수, 팩스접수, 방문접수 가능
◎전화: 063-285-6676, 010-7304-5665

※7월~8월 과정은 우석대, 원광대에서 강의함
※2학기 모집은 수시로 하며 9월 개강합니다.
※개인지도: 면접, 연설, 웅변, 시낭송, 인사말 등 상담 환영

김양욱 (사)한국스피치웃음협회 전북본부 회장이 직접 지도함.

환 영 장수군 천천면 금강다슬기축제를 위한 제1회 천천사랑 전국 트로트가요제

금강의 상류 청정지역 장수군 천천에서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관광홍보 지역주민의 풍요로운 삶에 이바지하는 가요제에 참가를 기원합니다.

①일시 : 2023년 8월 12일(토) 오전 10시예선, 본선 오후 4시30분
②장소 : 장수군 천천면 춘송길 11, 축제특설무대
③주최 :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전북본부
④주관 :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전북장수군지부
⑤참고 : 본 대회는 각 전국대회에서 대상(1등) 수상자는 제외함
⑥접수 문의 : (063)231-6669, 010-7304-5665, 010-4658-8198
⑦참가자는 일만원 경비 납부요망 (접수자는 안내함)

전북회장 김양욱, 장수군지부장 김윤만(장수군민) 올림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